



약품판매 보조원, 식생활 어드바이저... 일본 시니어들은 이런 직업에 도전한다

이직·전직·창업 자격시험 강좌 시니어에 인기

Editor **김용철** 매일경제TV 국장·매일경제 전 도쿄특파원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

■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다보면 세계가 넓어집니다. 파고들수록 재미가 더해지죠. 일단 도전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캔(You can)’으로 새로운 자신을 찾으세요.”

요즘 일본 TV에 자주 등장하는 온라인 교육 업체 ‘유캔(You can)’의 광고(CM) 카피다. 유캔은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평생교육기관이다. 취업과 이직(離職), 전직(轉職), 창업에 대비하는 150여 종의 다양한 자격시험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유캔’ 인기강좌 종합 랭킹

1. 의료 사무
2. 조제약국 사무
3. 파이낸셜 플래너(FP)
4. 식생활 어드바이저
5. 의약품판매 보조원(등록판매자)
6.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스페셜리스트
7. 부기 3급
8. 실용 펜글씨
9. 공인중개사
10. 컬러 코디네이터
11. 보육사
12. 영양원 사무
13. 건강식생활 실천 플래너
14. 행정사
15.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16. 조리사
17. 식이요법 코디네이터
18. 노무사
19. 정리수납 어드바이저
20. 아로마테라피 검정 1·2급



최근 들어 이곳 ‘유캔’ 수강생 중 50세 이상 시니어가 크게 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50대 이후 중장년층이 ‘새로운 자신’을 찾아 재취업과 창업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나긴 노후 대비를 위해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20~30년의 긴 노후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똥똥한’ 자격증은 매력적인 ‘재취업 및 창업 자본’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시니어들은 어떤 ‘제2의 직업’ 준비하고 있나

유캔은 매년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좌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일본 시니어들이 그리는 인생2막과 노후의 라이프스타일이 읽힌다. 또 제2의 직업 선호에서 남녀 간 차이를 보면 흥미롭다. 시니어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강좌에 앞서 유캔의 전체 수강생들이 취업과 이직을 위해 어떤 공부와 하고 있는지 ‘종합 랭킹’부터 살펴보자.

2020년 유캔 강좌 톱10에서 영예의 1위는 ‘의료 사무직’이 차지했다. 의료사무는 의료 관련기관에서 접수·회계·진료수가청구서 작성 등의 일을 하는데, 관련 자격증은 이직이나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의료사무직 준비 강좌는 지난 14년간 계속해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는 의료 수요가 많은 노인대국 일본의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종합랭킹에서 차석(次席)을 차지한 ‘(조제)약국 사무’ 강좌 역시 오랜 기간 최상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1·2위 강좌의 인기는 고령자가 많은 초고령사회 일본의 의료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위는 금융으로 부동산업계 취업과 이직 때 ‘무기’가 되는 파이낸셜 플래너(FP) 강좌다. FP의 인기도 고령화로 인한 긴 노후의 재정 설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인기 강좌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고령사회 일본의 모습이 더 뚜렷해진다. 종합 랭킹 30위권에 드는 강좌 중 의료부문이 10개를 점유하고 있다. 앞서 말한 의료사무와 조제약국 사무 외에도 영양원 사무, 치매 간병사, 멘탈헬스 매니지먼트 강좌에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건강·음식과 관련한 직업도 빠질 수 없다. 식생활 어드바이저(4위)와 함께 건강식생활 실천 플래너(13위), 식이요법 코디네이터(17위) 등이 있는데, 건강식단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컬러 코디네이터, 정리수납 어드바이저 등 일상생활 관련 강좌도 인기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50~60대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제2의 직업은 어떤 것일까.

먼저 50대, 역시 의료와 관련한 강좌 인기가 높다. 약품판매 보조원(등록판매자: 일반의약품 전문판매원, 일본은 2008년 9월 일반약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등록판매자 제도를 도입했다. 약사 부족과 비자격자에 의한 판매사태 증가 방지를 위해서다. 등록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8만여 명이 달하는 등록판매사가 전국에서 활동 중이다)이 1위를 차지했고, 간병사무와 조제약국 사무, 식생활 어드바이저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50대 남성 시니어만을 떼어놓고 보면 그들의 희망 일자리는 걸이

분야별 인기강좌

〈의료〉 의료 사무·조제약국 사무·의약품판매 보조원·보육사·요양원 사무

〈건강·음식〉 식생활 어드바이저·건강식생활 실천 플래너·조리사·식이요법 코디네이터·아로마테라피 검정 1·2급

〈생활·패션〉 컬러 코디네이터·인테리어 코디네이터·정리수납 어드바이저

〈전문직〉 공인중개사·행정사·노무사·파이낸셜 플래너

〈사무 기능〉 MOS 스페셜리스트·부기3급·실용 펜글씨

눈길 끄는 신규 강좌

1. 온천욕 어드바이저
2. 반려견사육 스페셜리스트
3. 세컨드커리어 어드바이저
4. 뜨개질(손으로 짜는 직조기술)
5. 고문서(古文書) 입문
6. 어른들의 유채화
7. 스포츠 영양플래너
8. 피부 스페셜리스트

조금 달랐다. 여성은 전체 랭킹에서처럼 약품판매 보조원이 1위였지만, 남성 시니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강좌에 가장 많이 몰렸다.

요즘 한국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의 정년퇴직이 본격화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유는 일본과 비슷할 것 같다. 또 여성이 의료 간병직을 선호하는 데 비해 남성은 공인중개사에 이어 파이낸셜 플래너, 행정사, 아파트 관리인이 상위를 차지해 대비를 보였다.

60대는 어떨까? 60대도 남성·여성으로 구분해보면, 여성 시니어의 경우 식생활 어드바이저, 레크리에이션 영양사(요양 놀이 프로그램 전문직), 건강식 코디네이터, 조리사 등 주로 식생활과 관련된 직업이 주류를 이뤘다.

60대 남성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관리인’이 최고의 인생2막 일자리로 꼽혔다. 아파트 관리인 모집 때 보통 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정년퇴직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좁은 문’을 뚫기 위해 관련 자격 외에도



50대 여성 인기강좌 톱10

1. 의약품판매 보조원(등록판매자)
2. 요양(간병) 사무
3. 조제약국 사무
4. 식생활 어드바이저
5. 의료 사무
6. 레크리에이션 요양사
7. 파이낸셜 플래너(FP)
8. 보육사
9. 건강식 코디네이터
10. 케어매니저

50대 남성 인기강좌 톱10

1. 공인중개사
2. 파이낸셜 플래너(FP)
3. 행정사
4. 아파트 관리인
5. 노무사
6. 제2종 전기공사기술사
7. MOS 스페셜리스트
8. 의약품판매 보조원(등록판매자)
9. 위험물 취급사
10. 실용 팬글씨

60대 여성 인기강좌 톱10

1. 식생활 어드바이저
2. 레크리에이션 요양사
3. 요양(간병) 사무
4. 건강식 코디네이터
5. 실용 팬글씨
6. 치매 간병사
7. 조리사
8. 의약품판매 보조원(등록 판매자)
9. 기모노 수선
10. 보육사

60대 남성 인기강좌 톱10

1. 아파트 관리인
2. 공인중개사
3. 행정사
4. 파이낸셜 플래너(FP)
5. 제2종 전기공사기술사
6. 노무사
7. MOS 스페셜리스트
8. 의약품판매 보조원(등록판매자)
9. 위험물 취급사
10. 사회복지사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생각의 유연성, 부지런함 등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 밖에 60대 남성이 선망하는 직업 강좌로는 50대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행정사, 파이낸셜 플래너 등이 인기다. 눈에 띄는 것은 50~60대 남성 시니어들의 인기 강좌에 전기공사설치사, 위험물취급사 등 기술적 전문자격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점인데, 기술은 나이를 불문하고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가져다준다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새로운 사회상, 새로운 직업

유겐의 신규 강좌들은 일본의 최근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 신규 강좌들은 건강, 일, 취미, 스타일 등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는 뉴 시니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들 신규 강좌는 앞으로 고령사회에 새롭게 등장할 신(新)직업과 뉴 비즈니스를 접쳐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려견 사육 스페셜리스트'는 이미 가족의 범주로 들어온 반려견의 세밀한 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보여주고, '제컨드커리어 어드바이저'라는 직업(자격)은 시니어들의 노후 인생설계에 대한 고민과 만족스러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이 밖에 뜨개질 강좌, 고문서 입문 강좌, 어른들의 유채화 강좌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노후의 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취미 등 체험소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를 예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스포츠영양 플래너, 피부 스페셜리스트라는 신규 강좌도 눈길을 간다.

일본은 올 4월 1일부터 기업에 고용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업은 정년 연장 또는 폐지, 계약사원 재고용 이외에 고용인의 이직이나 재취업 시 지원, 프리랜서로 독립할 때의 자금지원, 창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일손 부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관되게 일하는 것은 훌륭하다. 동시에 50대, 또는 60대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자신'을 찾기 위해 '제2의 직업'을 찾는 시니어들이 증가하는 사회현상 또한 긍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에서 '평생현역'이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유명 취업·이직 사이트 '도다(doda)'는 '제2의 직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배움을 지속하는 향상심(向上心·지속적인 향상욕구)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M



#투자자와연금TV
#구독 #좋아요 했더니
#연금관리법 #투자꿀팁
내 손안에 쏙!

꿀정보 시리즈 LINE UP

- 투자살롱
- 연금 TALK TALK
- 투자THE연금
- 우먼&머니톡
- 유튜브 세미나 and more!

“투자자와연금TV” 구독은?

▶ NAVER TV 🔍 YouTube 🔍 에서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로 검색하세요!

